

한숨 돌린 지방금융지주, 작년 대출금 증가로 '실적 선방'

지방금융지주 연 순이익 추정치 1.3조
순이익 감소폭, 지난해 상반기 보다 ↓
BNK금융, NIM 상승... 실적 증대

지난해 지방금융지주 순이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
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소폭 감소
하는 데에 그칠 전망이어서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중 은행
대출금이 증가하면서, 순이익 하락분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31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B
NK·DGB·JB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 합계는 1조2706억원으
로, 1년 전의 1조3239억원에 비해 4.
0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이 10%까지 감소한 것에

〈지방금융지주 연간 순이익 추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E)	2021년(E)
BNK	4,250	5,381	5,989	5,469	5,752
DGB	3,163	4,036	3,629	3,543	3,766
JB	2,644	3,210	3,621	3,694	3,852
합계	10,057	12,627	13,239	12,706	13,370

*2020년, 2021년은 추정치

/각사 취합·에프앤가이드

비해 하반기를 지나면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는
각각 5469억원, 3543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8.68%, 2.37% 감
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금융지주
가운데서 JB금융지주만이 연간 순이익
추정치 3694억원으로 전년보다 2.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BNK금융은 지난해 4분기 중 전년
대비 순이익이 78% 가량 급증해 68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4분기 중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3분
기까지 전년 대비 14.4%까지 감소했던
순이익이 한 자릿수까지 반등할 전망이
다. JB금융은 같은 기간 28.94% 증가한

68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
며, DGB금융은 14.34% 줄어든 542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BNK금융은 지난 4분기 중 꾸준
히 하락해온 순이자마진(NIM)이 상
승하면서 실적 증대를 이끌 것으로 예
측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BNK금
융의 은행 계열사는 금융채 연동 대출
상품 비중이 높으며, 시장금리 상승 전
환으로 NIM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에 NIM이 상승 반
전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에도 가파
른 상승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DGB금융과 JB금융 역시 NIM 하락
이 강보합으로 그친 반면, 대출 관련 수
요가 전분기 대비 각각 3.6%, 1% 가량
증가하면서 실적 방어를 이끌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방금융의 실적 개선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
다는 전망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대 금융지
주의 올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 합계는 1
조3370억원으로 작년보다 5.22% 증가
할 전망이다. 주요 지역 경제 산업인 자
동차, 철강 등 제조업 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기업대출 수요가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상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BNK
금융에 대해 "조선·자동차 산업 호전을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도 양호한 가운데
지역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다"며 "자
산건전성 및 대출 성장에 대해 긍정적
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명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생보 '방카슈랑스' 성장세... 초회보험 5.4조

전년비 40% 이상 늘어난 수치
보험사-은행 간 시너지 효과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생보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성장세가 두드
러지고 있다.

지난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생보사의 방카슈랑스 채널 초
회보험은 5조367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3조8296억원
과 비교하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초회보험료란 고객이 최초로 납입하
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즉, 초회보험료
의 증가는 새로운 보험 계약이 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지난해 10월 기
준 누적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2조
521억원으로 전년 동기 9086억원보다
12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전년 대비 각
각 87.5%, 40.5% 늘어난 4531억원과



지난달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상담창구. /뉴스시

1835억원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대형 생보사 이외에 중소형 생보사의
성장세도 기대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
다.

KDB생명은 같은 기간 1502억원으
로 전년 동기 26억원과 비교해 5676%
이상 늘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KB
생명도 1579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
하며 전년 동기 143억원과 비교해

1004% 이상 증가했다. 이어 하나생명
은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한 299억
원, DGB생명은 전년 동기 보다
170.66% 상승한 53억원의 초회보험료
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생보사가 은행을 통
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자산운용 역량 결집해 불확실 시장 돌파"

김형신 사업전략부부장 주관 전략회의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29일 서
울 중구 본사에서 김형신 사업전략부부
장(부사장) 주관으로 '2021년 제1차 자
산운용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
혔다.

이번 회의는 농협금융 주요 계열사
운용 부부장들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
행했으며, 2020년 성과를 돌아보고
2021년 자산운용 전략방향을 공유했
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시장의 불확
실성이 커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
룹 자산운용 역량 결집 세부 방안이 논
의됐다. ▲내부위탁 중심의 시너지 확
대 ▲운용 전략 프로세스 개선 ▲운용
역량 강화 방안 등이다. 지주 사업전략
부문이 이를 총괄하는 플랫폼의 역할
을,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이
내부위탁 운용과 역량 강화의 핵심 기
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NH-아문디자산운용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에서 열린 자산운용 전략회의에서 김형신 사
업전략부부장(부사장)이 자산운용전략회의를 주
재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글로벌 솔루션 본부를 신설하는 등 시
장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해외투자, 환
경·사회·지배구조(ESG), 대체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계열사 운용 인력 실
무교육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김 부사장은 "시장은 여전히 위기구
간에 있지만 농협금융은 이를 이겨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힘을 모
아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을 이
루어내자"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금융 "하나머니로 금·미술품 투자"

소액 대체투자 업무 제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머니를 금 투자
와 미술품 투자 등 소액 대체투자 수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금거래소디
지털에셋, 서울옥션블루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휴 계약을 통해 손님들은 하
나멤버스의 하나머니를 통해 소액으로
도 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고가의
한정판 스니커즈와 미술품에 대한 투자
도 공동구매를 통해 쉽게 참여할 수 있
게 된다.

하나멤버스에서 소액 금투자서비스
를 활용하면 손님이 금융거래 등으로
적립한 하나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0.
0001g 단위부터 금을 구매할 수 있다.
매입·매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실물
금 거래와는 달리 동일한 매입·매도 가
격을 제공하여 최대 1.5%의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 추구가 가능하며, 금 펀드
등과 달리 별도 배당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멤버스 앱에 탑재될 소액
공동구매 서비스에서는 최소 1000원의
금액으로 ▲한정판 스니커즈 ▲미술품
▲아트토이 등을 다수의 구매자가 공동
으로 구매하고, 소유권을 나누어 가진
후 가격이 오르면 재판매할 수 있다. 소
위 아트테크(아트+재테크), 스니커테
크(스니커즈+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실
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성민 하나카드 하나멤버스본부 부
부장은 31일 "이번 업무 제휴는 하나멤
버스를 통해 많은 손님들이 편리하게
소액 대체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회
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나머니를 활용한 다양한 소액 대체투
자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은행

비대면 거래외국환 신청 지원

KB국민은행이 '비대면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변경)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
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에 방문
하지 않고 KB스타뱅킹에서 거래외국
환은행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해
졌다. 이용 방법은 제출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KB스타뱅킹으로 전
송하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가 가
능하다.

지정 거래가 가능한 해외송금은 ▲국
민인 거주자가 증빙서류 없이 보내는
해외송금 ▲해외 유학생(해외체재자)
경비 해외송금 ▲외국인의 국내 급여
등이다. 또한 전 금융권의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현황 조회가 가능하며, KB
국민은행으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쉽고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은행 방문없이 'NH모바일아파트대출2.0'

대출 가능금액·금리 조회 가능

NH농협은행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
하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아파트를 담
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여신상품 'NH모바일아파트대출2.0'을
출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NH모바일아파트대출2.0은 소득금
액증명원으로 소득증명이 가능한 급여
소득자를 대상으로 임차인이 없는 본인
소유(부부 공동명의 포함)의 아파트를
이용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이나 소득증빙서류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NH스마트
뱅킹과 올원뱅크에서 언제든지 대출가
능금액 및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까지
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은 최대 5억원,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억원이다.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할부상환과 원리금균
등할부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3년 초과 33년 이내(거치기
간은 최대 1년)이다.

대출금리는 급여이체 실적(0.25%포
인트), 농협은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
적(0.25%포인트), 자동차이체(0.10%포
인트), 비대면 신청우대(0.20%포인트)
등 최대 1.40%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
을 제공해 최저 연 2.48%까지 가능하
다.

NH농협은행은 이번 상품출시를 통
해 주택관련대출 신청시 세대원들의 주
택 보유 확인을 위해 가족과 함께 은행
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안상미 기자